Sanyo, 리튬이온전지 가격인상 시도

日本經濟, 원자재 가격상승 탓 ... Sony는 4월부터 8-10% 인상 방침

Sanyo와 Sony가 원자재 비용상승을 이유로 2004년 봄 사상 처음으로 리튬이온전지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다.

니혼케이자이(日本經濟)신문에 따르면, Sanyo와 Sony는 리튬이온전지 가격인상을 위해 휴대전화 및 디지털 가전제품 생산기업들과 이미 협상에 돌입했으며 양사가 리튬이온전지 가격인상을 시도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.

Sanyo는 이르면 3월에 체결되는 계약 때부터 리튬이온전지 가격을 평균 8% 인상한다는 방침이다.

Sony도 빠르면 4월부터 가격을 인상할 계획인데, 노트북 컴퓨터용 전지 가격은 10% 이상, 휴대전화용 전지 가격은 8% 이상 각각 올린다는 복안이다.

Snyo는 세계 리튬이온전지 시장에서 점유율이 40%로 가장 높으며 Sony는 20%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. 두 기업은 매달 6000만개의 리튬이온전지를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다.

<Chemical Journal 2004/02/25>